18강 자본주의의 극복

1. 아비투스와 자본주의

◇ 아비투스의 도식schemes은 실천을 실질적으로 방향지우며 사람들이 흔히 '가치관'이라고 잘못 부르는 것을, 별 생각 없이 행하는 제스추어나 일견 무의미하게 보이는 신체기법(걸음걸이, 코를 푸는 방식, 먹거나 이야기하는 방식)에 새겨 넣으며, 사회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및 평가원리, 즉 (계급, 연령집단, 성별 간의) 분업이나 지배의 분업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제 원리를 신체의 구분과 신체에 대한 관계 속에 투입한다. 이런 분할은 지배의 분업을 자연스런 것으로 보는 것과 같이 노동의 성적 분업과 성적 노동의 분업으로부터 하나의 특징을 빌려온다. 취향은 사회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에게 어울리는 것은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분포 구조를 실천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인데, 그것은 일종의 사회적 방향감각('자기 자신의 자리에 대한 감각')으로 기능하며 사회 공간 내에 주어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재산에 알맞은 지위,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걸맞는 실천이나 상품 쪽으로 인도한다. 또한 취향은 사회 공간 내에서 그들이 배치될 경우, 그리고 또 상품과 제 집단들 간의 대응관계에 대해 다른 행위자들이 갖고 있는 실천적 지식이 주어졌을 경우, 선택된 실천과 대상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천적 예측을 암시한다.『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 부르디외의 아비투스는 그의 말대로 "구호화된 구조이자 동시에 구조화하는 구조"이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비투스가 일종의 육화된 지식, 그러니까 반성하기 힘든 일종의 육체적 지식이라는 점이다.

◇ 아비투스가 의식되는 것은 아비투스가 각인되었던 조건과는 다른 조건에 처하게 될 때이다.

◇ 동양의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황제내경(黃帝內經)』이란 텍스트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진찰할 때는 세 가지는 갖추어야 한다. 반드시 귀천, 높은 지위에서의 몰락, 그리고 명예욕에 대해 물어보아야만 한다(診有三常. 必問貴賤, 封君敗傷, 及欲侯王「소오과론(疏五過論)」)." 이것은 질병은 단순히 외적인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마음, 나아가 환자의 무의식적인 아비투스로부터 기인하기도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2. 새로운 아비투스를 만드는 로빈슨, 그리고 타자의 힘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굴이 파괴되고 난 뒤에 또다시 스페란차에 밀어닥친 새로운 재난은 끝내 로빈슨을 그의 옛 근본과 연결해주고 있던 최후의 매듭을 완전히 끊어놓고 말았다. 이제 그는 방드르디와 단둘이서만 고독하고 자유롭고 공포에 질린 채 표류하고 있었다. 나무가 어둠 속에 쓰러지는 순간 그를 구하기 위하여 그의 손을 잡아주었던 저 검은 손은 이제는 놓을 수가 없었다.

그 후 로빈슨이 드디어 터득하기 시작한 방드르디의 자유는 폭발로 인하여 섬의 표면에 지워져버린 질서의 부정만은 아니었다. 초기의 스페란차에서 겪은 추억으로 미루어보아 가진 것 하나 없이 변덕스러운 온갖 충동들과 갖가지 절망의 여파에 몸을 맡긴 채 표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로빈슨은 그의 동료의 행동 속에 어떤 감춰진 통일성과 암암리의 원칙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방드르디는 실질적으로 일이라곤 전혀 하지 않았다. 과거와 미래의 개념이라고는 일체 알지 못하는 그는 오로지 현재의 순간 속에 갇힌 채 살고 있었다. (…) 방드르디에게서 용기를 얻어 이제는 알몸으로 햇볕에 나섰다. 처음에는 잔뜩 겁을 먹고 쭈그린 채 흉하기만 했던 그의 모습이 차츰차츰 피어났다. 피부는 구릿빛으로 변했다. 새로운 자부심이 가슴과 근육을 팽창시켰다. 그의 몸에서 어떤 열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영혼은 거기에서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자신감을 얻어 내는 것 같았다. 이리하여 기꺼이 받아들여지고 어렴풋한 욕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육체는 단순히 외부 세계의 짜임새 속에 끼어 들어가는 가장 좋은 도구일 뿐만 아니라 충실하고 강력한 동반자 구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는 방드르디와 함께 놀이와 운동을 하곤했다. 전 같으면 위신상 어림도 없다고 생각했을 일이었다.『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 로빈슨 총독의 휘하에서 평신도와 노동자로 지내던 방드르디는 예상치도 못한 커다란 사고를 치게 된다. 그는 실수로 로빈슨이 화약을 포함한 문명의 이기들을 저장해놓았던 총독의 굴을 폭발시켜버린 것이다. 로빈슨의 "내적인 빛"을 가능하게 했던 기독교적이고 자본주의적이며 동시에 제국주의적이었던 문명의 흔적들은 일순간에 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 로빈슨은 권력자와 부르주아의 자리로부터 추방당한 존재가 되었다.

◇ 로빈슨은 기존의 아비투스와는 다른 새로운 아비투스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 기존의 아비투스를 지탱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자, 로빈슨의 눈에는 방드르디라는 존재가 단순한 피지배자가 아니라 고유한 삶을 영위하는 주체로 다가오게 된다.

◇ 자본주의와 무관한 방드르디의 아비투스는 놀이의 아비투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다.

→ 노동이 어떤 목적을 위해 현재를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면, 놀이에서는 현재 자체가 수단이면서 동시에 목적이기 때문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